

【발표 4】



일본의 줄다리기 전승 현황

호시노 히로시 |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명예연구원

1. 개설

당진시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최하는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시고 일본의 줄다리기의 전승현황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한국 정부의 관계자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본의 전통 줄다리기 행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날(正月)이나 백중날(오봉), 단오, 8월 보름 등 주요 연중행사에 벗짚이나 띠짚, 창포 등으로 줄을 만들어 줄다리를 합니다. 마을을 농촌부와 어촌부, 동서, 상하 로 나뉘어 줄다리를 하거나 어린이와 청년, 남자와 여자 등 두 패로 나누어 줄을 당겨 승부를 가릅니다. 또 줄을 함께 끌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땅바닥에 내리치거나 줄을 자르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줄다리기의 승패로 생업의 풍년 흉년을 점치기도 하고 악령을 퇴치하여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줄다리기 행사는 동일본, 서일본(西日本), 남일본에 널리 전승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민속행사와 마찬가지로 근대화 이후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쇠퇴와 변화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일차산업 종사자들이 도시의 샐러리맨이 되면서 행사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로 변경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의 과소화현상으로 인해 민속행사의 지속, 계승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 풍습을 유지해왔던 산간벽지의 귀중한 문화유산들도 이와 같은 단절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0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줄다리를 비롯하여 각종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시대의 추세에 거스를 수 없어

많은 민속행사들이 쇠퇴, 소멸되었습니다. 1954년도부터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민속행사들을 무형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목록작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을 피크로 민속행사들은 현저하게 쇠퇴하였으며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무형민속자료는 무형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요 민속행사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보호정책이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무형민속문화재를 지정하기도 하고 혹은 기록 작성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선택 무형민속문화재로 선정하였습니다.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그 외 일본 전국각지에 전승되고 있는 20곳의 줄다리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중 2, 6, 9, 15, 17번은 각각 아키타현(秋田縣), 이시카와현(石川縣), 교토부(京都府), 가고시마현(鹿兒島縣)의 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입니다. 국가적인 보호조치 이외에도 일본 전국 47도도부현(都道府縣) 및 각 지방자치체는 문화재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해당 행정관할의 지정 무형민속문화재 혹은 선택 무형민속문화재 등으로 보호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국 각지의 줄다리기 목록

번호	명칭	소재지	개최일	문화재 종별	전승 형태별
1	가리와노 줄다리기 (刈和野の綱引き)	아키타현	음 1월 15일	국가 지정	단일형
2	오마가리 줄다리기 (大曲の綱引き)	아키타현	2월 15일	현 지정	단일형
3	반다이 신사의 배 당기기 축제 (磐梯神社の船引き祭り)	후쿠시마현	춘분	국가 선택	단일형
4	유즈가미 다이모지 당기기 (湯津上のダイモジ(大念繩)引き)	토치기현	8월 14일	국가 선택	단일형
5	오이소의 달불놀이 (大磯の左義長)	가나가와현	1월 14일	국가 지정	복합형
6	곤간신지 (御願神事)	이시가와현	2월 10일	현 지정	단일형
7	츠히가 니시마치 줄다리기 (敦賀西町の綱引き)	후키이현	1월 제3일요일	국가지정	단일형
8	휴가의 줄다리기 행사 (日向の綱引き行事)	후쿠기현	1월 제3일요일	국가 선택	단일형
9	호소노 이고모리 축제 (祝園の居籠祭り)	교토부	1월 첫 申의 날에서 3일간	교토부 지정	복합형
10	타지마쿠타니의 창포줄다리기 (但馬久谷の菖蒲綱引き)	효고현	6월5일	국가지정	단일형
11	이나바 창포줄다리기 (因幡の菖蒲綱引き)	도토리현	- 음력 5월 5일 가까운 일요일, - 음력 5월 5일 전후의 토.일요일, - 6월 5일후의 일요일	국가지정	단일형

12	미사사의 진쇼 (三朝のジンショ)	도토리현	5월 3,4일	국가지정	단일형
13	요부코의 대줄타리기 (呼子の大綱引き)	사가현	6월 제1토, 일요일	국가지정	단일형
14	고토의 줄타리기 (五島の綱引き)	나가사키현	설날		단일형
15	센다이 대줄타리기 (川内大綱引き)	가고시마현	9월22일	현 지정	단일형
16	미나미사츠마의 십오야행사 (南薩摩の十五夜行事)	가고시마현	음력 8월 15일	국가지정	복합형
17	유이의 풍년춤 (油井の豊年踊り)	가고시마현	음력 8월 16일	현 지정	복합형
18	요론의 십오야 춤 (与論の十五夜踊り)	가고시마현	음력 8월 17일	국가지정	복합형
19	오키나와 줄타리기 (沖縄の綱引き)	오키나와현	음력 6월~8월	국가선택	복합형
20	이시가키섬 시카마을의 푸리이 (풍년축제) (石垣島四ヶ村のプーリイ(豊年祭り))	오키나와현	음력6월 2번째 토, 췌의 길일부터 2일간	국가선택	복합형

2. 각지의 줄다리기의 전승 형태별 개요설명

앞에서 언급한 20건의 줄다리기를 일본 지도에 표기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동해(일본해)에 접해있는 지역, 규슈의 북부에서 남부, 그리고 아마미(奄美), 오키나와(沖縄)의 서남 지역의 여러 섬 등 대체로 대륙에 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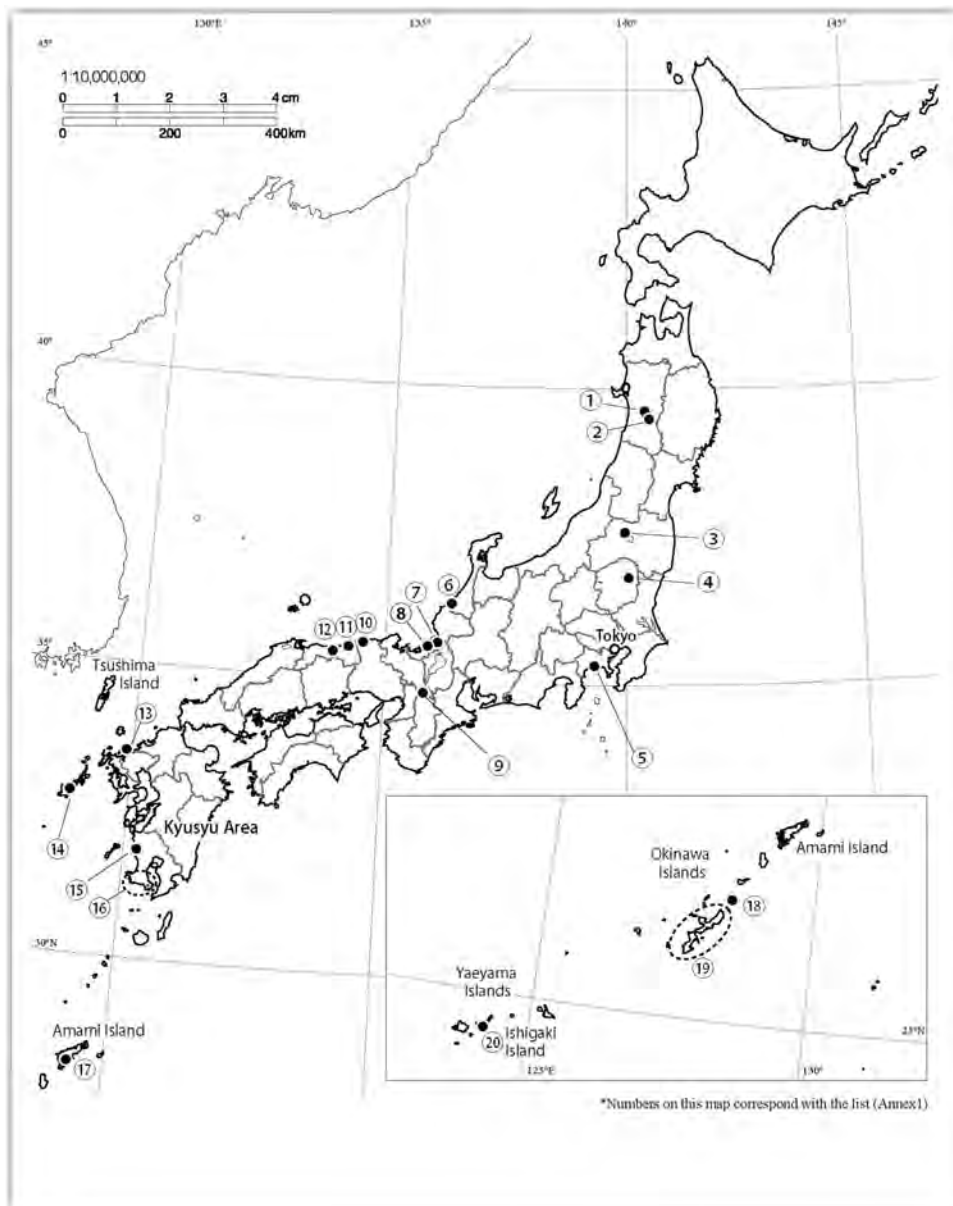
줄다리기의 목적이나 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20곳의 줄다리기를 편의상 전승형태 유형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줄다리기의 단일행사(단일형)이며 다른 하나는 본 행사의 일부로서 줄타리기 행해지는 경우(복합형)입니다. 수적 보아 단일형이 복합형의 약 2배에 이릅니다.

(1) 줄타리기 단일전승의 경우

단일형 줄다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위의 일람표의 번호로 보면 음력 정월 대보름(小正月)에 거행되는 것이 이 1, 2, 7, 8, 14번이며, 단오 때 거행되는 것이 10, 11, 12, 13번이며, 백중날(盆)에 거행되는 것이 4번입니다. 15번은 9월22일 (원래는 음력 8월 14, 15일)이며, 20번 오키나와(沖縄)에서는 음력 6월~8월사이의 수확 축제, 백중날(盆), 8월 보름(十五夜)에 실시됩니다.

모든 줄다리기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암줄과 수줄 두 개의 줄을 연결시키는 지역이 많습니다. 두 패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여 그 승패로 생업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는 것이 주행사입니다. 줄타리기 주 행사 전후에는 줄을 들고 돌거나 끌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줄로 땅을 치기도 합니다. 8번 휴가의 줄타리기(日向の綱引き行事)처럼 줄타리기할

때 줄을 서로 빨리 끊기를 경쟁하기도 합니다. 또 줄다리가 끝난 후 줄을 풀거나 강이나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신사에 받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유즈카미의 다이모지 끌기(湯津上のダイモジ (大念繩) 引き)와 11번 이나바 창포줄다리기(因幡の菖蒲綱引き)에서와 같이 줄다리가 끝난 후에 줄로 씨름판(土俵)을 만들어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줄 재료는 주로 볏짚을 사용하지만 단오 때 거행하는 10, 11, 12, 13번의 경우에는 볏짚에 창포나 쑥을 함께 넣어 꼬아 줄을 만듭니다.



일본의 줄다리기 분포

단오 때의 줄다리기는 어린이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른의 줄다리로 진행된다. 규슈북부나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남녀가 줄다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성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복합 행사의 일부로서의 줄다리기 전승

복합형 행사로서는 설날의 신앙적인 행사(神事)로 거행되는 교토부의 9번 호소노 이고모리 축제(祝園の居籠祭り), 규슈(九州) 남부에서 남서제도(南西諸島)에 걸쳐 8월 보름(十五夜)행사로써 16, 17, 18번, 그리고 오키나와(沖繩)의 20번 야에야마(八重山)의 풍년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형 행사는 줄다리가 축제의 일부로서 거행될 뿐만 아니라 17, 18번과 같이 예능 곡목순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9번은 연초에 일정 기간동안 신사에 칩거하는 행사(お籠り神事)가 있으며 신(神)을 청하는 의례(神勸請儀礼), 풍년을 미리 축하하는 놀이행사(御田)에 이어서 줄다리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둥근 고리형태(輪形)의 줄을 사용하며 줄다리가 끝난 후 줄은 태워 버립니다.

8월 15일 밤(十五夜)줄다리기행사로 주목할 만한 것은 16, 17번입니다. 줄다리에 줄 끊기를 하거나 끊은 줄로 씨름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16번은 매우 독특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산에서 잘라온 띠 짚으로 줄을 만듭니다. 띠 짚으로 줄다리기의 줄 뿐만 아니라 둥근 고리형태로 달 모양을 만들어 나무에 걸기도 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에 때에 자른 줄 자락을 이용하여 지면에 달 모양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달(月)에 대한 신앙과 줄다리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띠 짚과 조(粟), 피(稗), 고구마(イモ)등의 작물의 줄기나 잎을 섞어 함께 꼬아서 달 모양의 줄을 만드는 사례를 오노 주로(小野重朗)씨는 벼농사가 도입되기 이전에 작물 경작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오야 행사도 최근에 와서는 과소화 현상이나 출생률 감소로 인해 어린이가 적어 간략화 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줄다리기의 유사 전승

줄다리기는 아니지만 줄다리기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민속행사가 위 일람표의 3, 5, 6번입니다. 3번 반다이 배 당기기 축제(磐梯舟引き祭り)는 배에 쌀가마니를 싣고 줄을 매달아 끌어당기는 행사입니다. 5번 오이소의 달 불놀이(大磯の左義長)는 썰매위에 임시 신사(仮宮)를 설치하고 줄을 매달아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서로 당기는 행사입니다. 6번 고간신지(御願神事)는 예전에 줄다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벚짚으로 땀(藁

蛇)를 만들어 청년들이 끌고 돌아다니다가 이를 잘라 강에 흘려보내는 행사만이 남아있습니다.

한편 줄다리기의 줄을 뱀이나 용으로 여기고 수신(水神)과 결부시키는 지역은 아직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